폭염 대비 종합대책 본격 추진

임실군, 합동 전담팀 구성·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상황관리 대응체계 구축

그늘막 16개 가동, 무더위쉼터 332곳 냉방기 점검, 살수차·재난도우미 운영

임실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와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이 높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폭염대책 기간인 올 9월 30일까지 관련 부서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 폭염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고 체계적인 폭염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군은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여름철 군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에 대한 집중 점검과 운영에 나섰다.

무더위쉼터인 경로당·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319개소와 읍·면사무소 13개소 등 총 332곳에 대한 냉방기 등을 집중 점검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 도로변 등에는 보행자가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1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기온·시간 등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가 조절되는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로 설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로 복사열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큰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을 폭염이 가장 심한 7~8월 중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읍·면 소재지 주요 도로 등에 집중적으로 살수해 열섬화를 방지할 예정이다.

인구이동량이 많은 4곳의 터미널(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는 음용대를 폭염 기간에 비치하여 더위에 지친 이용객들의 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은 노인돌보미와 자율방재단, 이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군민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수시로 점검 활동을 벌여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 홈페이지, 마을 방송, SNS,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밀착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철저한 폭염 대비로 군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불편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들도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

올해 39가구 선정 사업 진행중

남원시는 사회적 주거 약자인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도록 하여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수가 시급한 주택부터 실시하게 되며, 최근 3년 이내 집수리사업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에는 39가구 총 1억9,500만원으로 가구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붕·벽체의 구조보강,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전기·가스시설 등 주거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의 중도 포기자로 인한 물량이 있을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약 이행평가단 제3차 최종 회의

남원시는 지난 13일,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35명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제3차 최종회의를 마쳤다.

평가단 1~2차 회의에서는 남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 ARS, 2차 전화 면접을 통해 선정한 평가단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5개 분임별로 배정된 조정안건과 평가안건에 대해 공약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각 분임 평가단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며 공약 조정 및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3차 최종회의에서는 5개 분임별로 배정된 조정안건 5건과 평가안건 10건에 대해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및 공약이행현황 검토를 위한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단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투표를 통해 공약 조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결과 5개의 조정 안건 모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이 승인되었고, 평가 안건 10건에 대해 평가단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단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약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소통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남원시는 확정된 회의 결과와 제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7월 중 시 홈페이지에 수용여부를 공시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평가단을 통해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의 조정 및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고 강조했다.

ㅂ/남원=김기두 기자

영·호남·충청·강원이 함께 하는 제22회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정기 현장공연'이 지난 15일 순창군 금과들소리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제22회 금과들소리 정기공연 개최

순창군, 금과들소리전수관 야외공연장서 500여 명 관중 참석

'영·호남·충청·강원이 함께 하는 제22회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정기 현장공연'이 지난 15일 순창군 금과들소리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김봉호)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의회 등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에 힘써 온 윤영백씨와 보존회 회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500여 명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과들소리는 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힘든 농사일을 품앗이로 극복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소리로 표현한 농요로, 음계와 선법이 판소리의 우조 및 계면조와 일치하는 것이 다른 지역 농요와의 차이점으로 인정받아 2005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농요 부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이날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제84-1호 '경남 고성농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제2호 '수영 농청놀이', 충남 무형유산 제20호 '홍성 결성농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5호 '강릉 학산 오독떼기' 등이 함께 재연되어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금과들소리'가 연주됐으며, 이 외에도 금과 아미농악, 민요, 난타, 취타대, 색소폰,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면서 흥겨움을 더했다.

금과들소리보존회 김봉호 회장은 "5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과들소리는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소중한 무형유산인 만큼 애정을 갖고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에 영·호남·충청·강원 지역의 농요가 함께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 공연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라져가는 전통 무형유산 보존 전승을 위해 애쓰시는 금과들소리보존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의 공적을 인정받아 오은숙 보존회원이 순창군수 표창을, 이명순 보존회원이 순창군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강인형 옥천인재숙 원장, 설용수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설구호 서암조경 대표가 금과들소리보존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27일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상우)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임실군민회관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2024년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도민화합과 지역민들에게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부응하는 열린 국립묘지로서 호국의 가치를 알리고자 추진됐다.

2024년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는 효녀가수 현숙과 함께 규리, 나휘, 35사단군악대, 전주CBS어린이합창단, 호원대 K-POP 학부댄스팀(지플린, 4EVER) 등이 출연할 예정으로, 호국보훈공연과 도민화합공연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김상우 원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전북도민·보훈가족·국군장병들이 함께 어울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일상의 무거움을 잠시 잊고 함께 어울리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교량 분야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임실군이 2024년 교량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위해 건설과 등 2개 부서를 합동 구성하여 지난 12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설상희 부군수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량을 찾아 재해 유발 요소 사전 파악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점검한 왕방교는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최종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됐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위험표지판 설치, 임실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 강남대성학원 입시컨설팅 개최

순창군 옥천인재숙(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고등학교 3학년 입사생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인재 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컨설팅은 2025학년도 대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옥천인재숙 강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울의 유명 학원인 강남대성학원 입시연구소 김원중 소장을 초청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원중 소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학 입시 전략설명회에서도 탁월한 설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 바 있어, 이번 컨설팅 또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컨설팅은 학부모와 입사생이 동반 참석하여 1대1 대면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자료 등을 토대로 수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3학년 1학기 마무리 전략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옥천인재숙은 이번 컨설팅을 시작으로 전체 내신 및 6월 평가원 시험 반영 성적을 바탕으로 8월 중 추가 입시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